

천주교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 기쁜 소식 ”	“연중 제 3 주일 “	2010 년 1 월 24 일
복음 묵상:	[루가 1,1 -4; 4,14-21]	[느헤 8,2-4 7.5-6.8-10]	[1 고린 12,12-30]

신부가 되고나서 어느 순간부터 예능 프로그램보다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강론 꺼리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알기 힘든 여러 분야의 이야기와 정보들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 살인, 폭력, 방화 등 각종 비리와 약점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만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제 뉴스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흥분하고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인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운유, 절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분의 뜻과는 멀어져만 갑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적대심, 시기, 격분, 이기심,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듯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구종 나충열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입단

- 최광섭 요한 형제님(엘리사벳 반주자님의 짝)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어 입단하셨습니다. 레너파트에 큰 힘이 되시리라 확신하며 모두 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도 바쁜중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 지휘자 세실리아 자매님의 부군이신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지난 월요일 수술을 마치고 Pleasanton 에 살고 있는 딸의 집으로 퇴원하시어 요양중에 있습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중에 청해주시시오. 항상 기도해 주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2 주간의 여정으로 16 일(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최남숙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권 베로니카님)의 간병차 서울에 가시어 15 일, 수술후 회복중에 계십니다.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1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2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3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4,14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15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17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18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1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10년이 젊어지는 건강 습관◇

10.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를 닦지 말라.

피부도 숨을 쉴 시간이 필요하다.샤워를 하고 나면 수건으로 보송보송하게 닦지 말고저절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둔다.샤워 가운을 입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 시간에 피부는 물기를 빨아들이고 탄력을 되찾는다.

11. 밥 한 숟가락에 반찬은 두 젓가락 씩

밥 한 수저 먹으면 적어도 반찬은두 가지 이상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국에 말아먹거나 찌개 국물로 밥 한 숟가락을 넘기는 것은그야말로 '밥'을 먹는 것이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자신의 식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고 반찬을 한가지도 잘 먹지 않을 때는의식적으로 '밥 한 번, 반찬 두 번'이라고 세면서 먹는다.

12. 매일 가족과 스킨십을 한다.

아이만 스킨십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엄마도 아빠도 적당한 스킨십이 있어야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활기차진다.부부 관계와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부부는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최고 8년은 더 젊고 건강하다고 한다.연애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손잡고 안아 주는 생활 습관이 부부를 건강하게 한다. (끝)



1분 명상

“ 오 주여!”

- T. A. 캠퍼스 -

오 주여,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당신의 뜻에 무엇이
정말로 즐거운 것인가를 묻게 하소서

